“부처님 진신사리에 茶공양 올립니다”

금강사,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 개최

차밭골서 부산 차문화 시작 역설
2천여 명 참석… 찻자리 등 풍성
中·日 전통차도 선봬 ‘국제교류’
“차는 마음과 몸의 건강 기반”

하얀 벚꽃 나무 아래 차향이 피어올랐다. 청정함을 상징하듯 순백의 한복을 차려입은 108명의 차인들은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서 차를 올렸다. 부산 금강산 자락 차밭골에는 백화만발다례제 작법에 맞춘 진언과 공양게가 울려 퍼졌다.

부산 금강사(회주 혜성)는 4월 1~2일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를 봉행했다. 부산차밭골문화제는 차 유적지를 금강사에서 발견한 후 회주 혜성 스님과 (사)한국차인연합회 최순애 부회장이 부산지역이 차문화 발상지임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문화제는 매년 전국 800여 단체가 활동하는 (사)한국차인연합회 소속 차인 2,000여명이 참여하며 중국과 일본의 전통 찻자리도 열려 국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날 금강사는 지난해 8월 스리랑카에서 기증 받은 진신사리를 이운했다. 백화만발공양다례제는 매년 진행됐으나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선 처음으로 열려 의미가 깊다.

행사는 삼귀의로 시작돼 △내빈소개 △대회사 △봉행사 △축사 △축시 낭송 △차수(茶水)공양 △백화만발다례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 두리차회, 홍차, 녹차, 흑차 등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찻자리가 개최돼 풍성함을 더했다. 춘양화전놀이에서는 봄을 맞아 활짝 핀 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대접해 눈길을 끌었다.

또 회주 혜성 스님의 선서화전이 특별전시로 개최됐다. 혜성 스님은 뉴욕 맨하탄 한인회, 일본 노무라박물관 선서화 초대전, KBS 방송국 선서화전를 비롯해 여러 차례 선서화전을 열며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자리에는 회주 혜성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이 참여해 축하했다. 아울러 박권흠 (사)한국차인연합회 회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전광우 동래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혜성 스님은 차 마시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해마다 많은 차인들이 참여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내용이 더욱 알차다”며 “차는 다반사로 항상 생활 가운데 가까이 하고 마시도록 해야 한다. 마음의 건강과 생활 문화 그리고 정신 건강 까지 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인 108명이 4월 1~2일 열린 제13회 부산차밭골문화제서 백화만발공양으로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서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박권흠 (사)한국차인연합회장은 “2016년부터 ‘전 국민 차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차밭골 차문화제가 기폭제가 되어 부산 지방에 차 마시는 문화가 다반사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108명의 차인들이 차를 올리는 백화만발공양다례는 차문화를 표현하는 행다례의 극치”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차밭골문화제는 차나무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됐다. 과거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온천장 그리고 남산동 등 금정산 아래에 차나무가 가득했지만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점점 차나무가 줄어들었다. 금강사는 100여명의 차인들로 참여한 선다회를 구성해 차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금강사는 25년 전부터 지역에 2만4000㎡ 크기의 차 밭을 조성하고 13년 전부터 문화제를 열어 차의 성지로 기념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20돌 미타선원, 수행·포교 전념 ‘다짐’

4월 3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미타선원(주지 종호)는 4월 3일 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종호 스님은 “20살 성년이 된 미타선원은 안으로는 기존 수행전통을 이어 기도정진프로그램 활성화 및 상설 시민선방을 운영할 것이다. 밖으로는 명상심리상담, 마음치유, 행복한 치유명상 강좌 등 현대인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도 중심의 신도회 구축이 당면 과제”라고도 밝혔다.

한편 미타선원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부산광역시 중구청 이웃돕기 300만원, 영도구노인복지관 240만원 등 연간 총 3600여만 원을 이웃 사랑 후원금으로 기부했으며 장학금 및 청소년 포교 후원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정성 담은 도시락, 사랑을 키워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희망나눔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3월 30일 복지관 내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 나누기’라는 주제로 희망 도시락 나눔과 후원금을 저소득 가정 아동 15명에게 전달했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나눔에는 은행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 동참해 도시락을 만들며 아동들과 시간을 보내고 후원금 400백만 원도 전달했다.〈사진〉

이춘성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 직원분들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아동들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아동들에게 오랜 시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산중부영업본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프로그램도 정기적 열어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원효종 요산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태국 국립마하출라롱컨대서 한국분교로 이운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울산 요산정사(주지 청암)는 4월 3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했다.〈사진〉

부처님 진신사리 요산정사 이운 법회는 태국 국립마하출라롱컨 불교대학교에 봉안되었던 몇과를 한국분교에 이운, 요산정사에 봉안하게 됐다.

요산정사 주지 청암 스님은 “불법이 홍포된 지 2500여년에 이르러 울산 요산정사에 불과 진신사리를 이운했다. 환희에 찬 가슴으로 맞이하는 이 순간, 온갖 봄꽃들이 화창한 것이 마치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설법 시 꽃비를 내리는 듯하다”고 불연에 감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은 국립마하출라롱컨대학교 한국분교 총장 도성 스님이 요산정사 주지 청암 스님께 전달, 불단에 안치됐다.

이후 마정수기 법회에서 신도 일동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증득하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중생을 위해 보여주신 구도와 성불의 크나큰 뜻을 다시 새긴다. 지혜의 불, 자비의 불을 당겨주시길, 부처님의 위신력과 자비의 원력에 힘입어 감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원 합장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창업파워스쿨’ 강좌

4월 17일~19일, 전문 교육통한 창업교육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구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부설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성공 창업을 기원하며 ‘창업 파워스쿨’ 교육 강좌를 마련한다.

교육은 4월 17~1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상은 창업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는 모두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장소는 부산사하구창업비즈니스센터 교육장에서 열린다.

강좌는 ‘프랜차이즈창업의 이해’, ‘성공적인 재무전략’, 그리고 ‘ 점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린다. 특히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 이수 후 창업해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성인 백설기공주 대표와 황지영 온담 대표가 참여해 직접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051)263-3045

하성미 기자

통도사서 4000여 불자 持戒 다짐

〈지계〉

4월 1~3일 수계산림대법회 전계대화상 율주 혜남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회향했다.

통도사는 4월 1일~3일 경내에서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개최하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제자로 지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온 40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통도사 보살계수계 산림 대법회에는 전계대화상에 율주 혜남 스님, 갈마아사리 중선 스님, 교수아사리 지안 스님 등 3사 7증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계를 설했다.

혜남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며 “계를 수지하는 것은 어둠 속의 빛이며 감옥에서 벗어남과 같고 탕아가 집으로 돌아옴과 같다. 지계는 깊은 선정의 근본”이라고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독려했다.

통도사는 40회 수계자에게 성만패와 금색가사를 전달하고, 이어 30·20·25·10회 등 각 수계자들에게 기념 메달 및 금색가사 그리고 성만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강원 및 율원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 52명에게 장학금 총 4,870만원을 전달했다.


4월 1~3일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서 불자 4000여명이 보살계를 수지 후 금강계단 앞에서 연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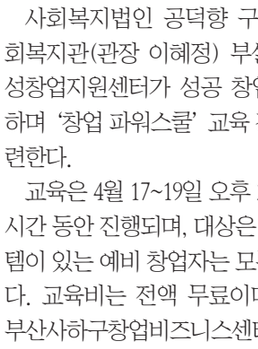
방장 대행 성파 스님은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통도사에는 금강계단이 있다.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건한 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를 설하고 있다”며 “지계를 통해 심성을 바꾸고 중생심에서 보살심으로 돌아간 마음이 온누리에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해마다 보살계 수계 살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다음해에는 가족들 모두 모시고 와서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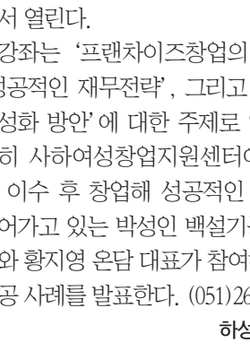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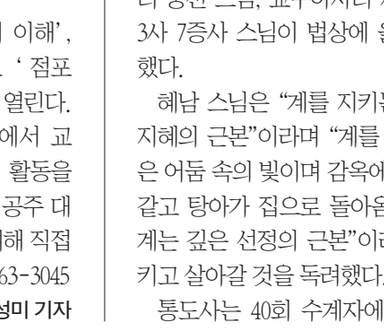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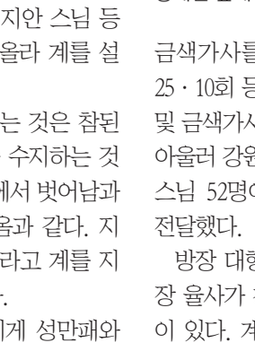
바라밀 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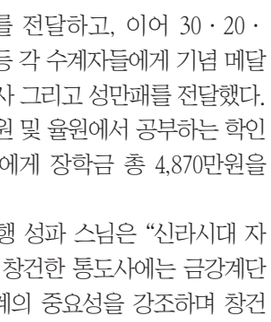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